

충격적 실체

한국교회 이단 조작의 실상과 폐해 1

벌써 소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극의 목회자가 있다. 평강제일교회 설립자 박윤식 목사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월남하여 한국 현대사의 가난과 아픔과 이북 출신이라는 차별을 딛고 목회자로 큰 업적을 이뤘으나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이단 시비와 공격에 시달렸다.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이단 전문가 T 소장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논란과 박윤식 목사가 받았던 오해와 실상을 두 번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1. 박윤식 목사의 이력과 T 소장과의 만남

1) T 소장과의 만남
황해도 해주 출신인 박윤식 목사는 1947년 월남하여 이듬해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6.25 전쟁 때 왼쪽 대퇴부 총상으로 1951년에 전역하였다. 이후 목회자가 되어 감리교 서리 전도사로 동마산에서 사역하다 상경했다. 1964년, 4명의 교인과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1969년 대방동에서 시온산 한돌교회, 1971년 신림동으로 이전, 교회명을 일석교회로 바꾼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다 1975년 경, 세문안 교회 강신명 목사(사진 1 참조)의 초청으로 부흥회 강사로 초빙되어 설교를 한 후 당시 세문안 교회 교인이던 T 집사를 소개받아 K종교문제연구소를 후원하게 되었다.



사진 1. 강신명 목사(왼쪽)와 박윤식 목사(오른쪽).



사진 2. 통일교 사과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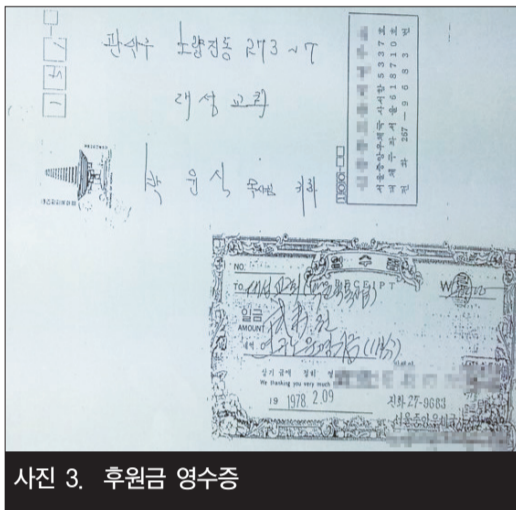


사진 3. 후원금 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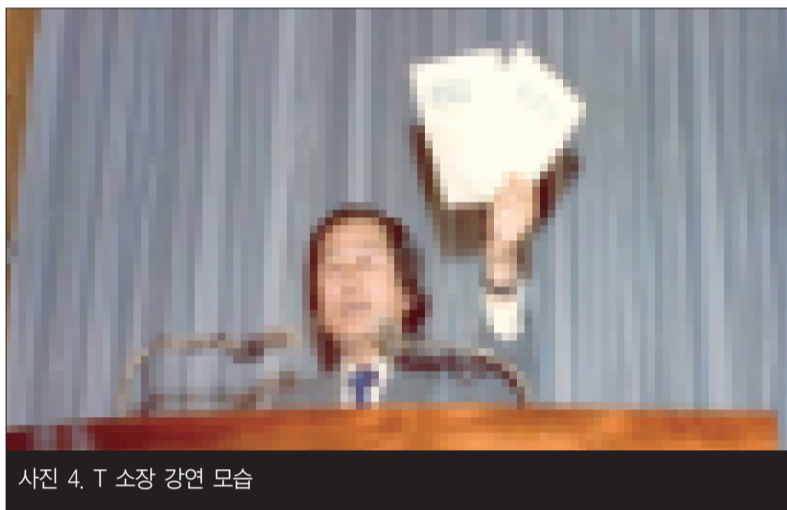


사진 4. T 소장 강연 모습

2) T 소장의 통일교에 대한 사과문 게재

이때부터 T 소장과의 박윤식 목사는 종교문제연구소와 후원자로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다 1978년, 당시 한국 교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른바 '통일교에 대한 사과문' (사진 2 참조) 게재 사건이다. 이단 종교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던 T 소장이 통일교에 대한 사과문을 당시 4대 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교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기존 후원자들의 후원이 끊기고 연구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박윤식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 지속적인 후원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평소 사람들과의 의리를 중요시하던 박윤식 목사는 당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사진 3 참조).

2. 'Hapsisa'를 통한 박윤식 목사의 이단 시비 내막

한국 교계에서 이단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던 T 소장은 통일교 사과문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지속적인 후원을 했던 박윤식 목사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다. 노랑진으로 이전한 대성교회에 T 소장이 1981년 2월 19일 목요일에 시간에 방문하여 '이단의 정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사진 4 참조). 이 내용은 Hapsisa 1983년 3월호 기사(81쪽)에도 나온다.

그러다 1983년 들어 T 소장은 Hapsisa 김도 편집국장을 통해 후원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이어서 어렵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하고 해보자는 거요? 다음에 Hapsisa를 통해 당신 기사가 나갈 거요!"라고 경고하였다. 이후부터 T 소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공격하는 일에 앞장 서게 된다. 그리고 Hapsisa 1983년 3월호와 4월호에 예고한 대로 연이어 기사를 게재하였다.

1) Hapsisa 1983년 3, 4월호의 내용

3월호의 특집기사 제목은 "말씀의 아버지, 박윤식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였고, 4월호는 "말씀의 아버지, 박윤식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었다"라는 내용이다(사진 5 참조). 해당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박윤식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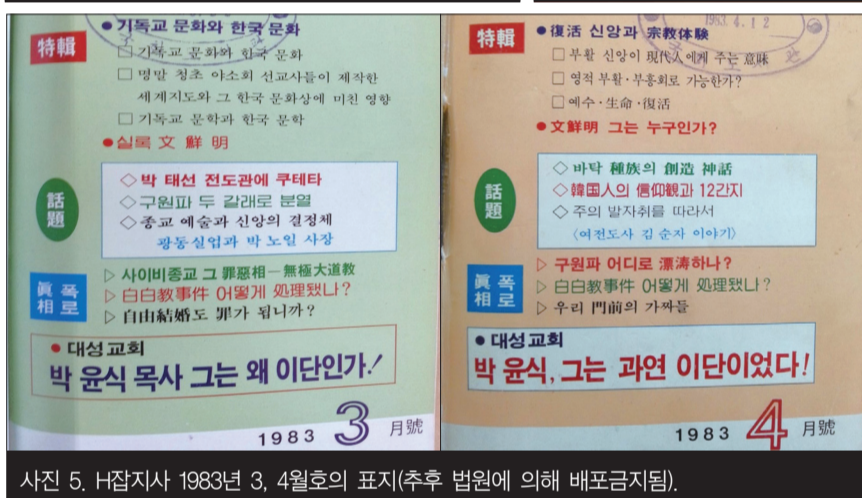


사진 5. Hapsisa 1983년 3, 4월호의 표지(주후 법원에 의해 배포금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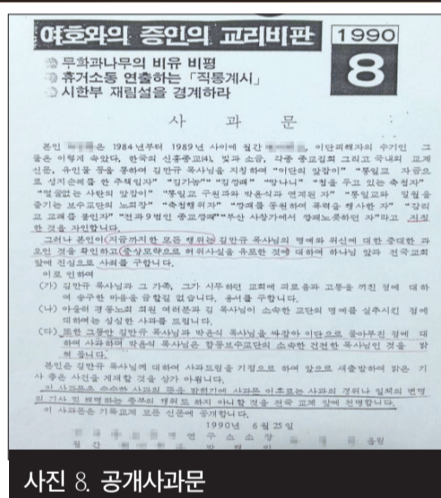


사진 8. 공개사과문



사진 6. 원본 사진



사진 7. 조작 사진

사의 설교나 신학 사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이에 바탕한 이단논쟁을 한 내용이 아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가십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같으면 '팩트 체크'를 통해 즉각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언론사의 일방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83년 3월호 기사(79-101쪽)의 주 내용은 박윤식 목사의 설교는 대부분 변찬린씨의 책 내용을 보고 베낀 것에 불과하며, 박윤식 목사의 월남 이후 행적에 대한 이력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내용이다. 3, 4월호에서 반복해서 공격하는 핵심 내용은 미국에 여러 채의 호화주택을 구입하여 호화판 생활을 한다는 설 등을 주장하여 독자들에게 자극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4월 호 94쪽에는 '도서반포금지 가져분 신칭'이라는 부제를 달고 대성교회 측에서 1983년 3월 18일자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사건을 언급하였다. "동 고소장에는 ... H

apsisa 8월호에 게재한 대성교회 박윤식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 허위인 것처럼 꾸며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2) Hapsisa, 도서반포금지 가져분의 인용과 손해배상 판결
그러나 T 소장의 자신감 있던 결기와는 다르게 법원은 1984년 4월 8일자로 현대종교 3, 4월호 배포금지 가져분을 인용하였다(83가7805). 이 사건은 당시 크리스찬신문 등 교계 신문뿐 아니라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에도 보도되었다.

박윤식 목사는 Hapsisa의 배포금지 뿐 아니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T 소장으로부터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고(83가합 2449),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84고단640). 이는 Hapsisa 3, 4월호의 내용이 그만큼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박윤식 목사를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기에 법원도 이례

적으로 신속히 판단하였다.

3) 조작된 사진의 게재와 법적 제재
T 소장은 3, 4월호의 배포금지가 법원에 의해 인용되자, 6월 호에 박윤식 목사를 불륜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그 증거로 조작된 사진을 게재하였다(사진 6, 7 참조).

이는 당시 박윤식 목사가 미국 LA 지교회에 방문하여 교인들과 찍은 사진을 오려내어 마치 불륜관계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T 소장이 제시한 사진의 주인공은 현재도 LA에 거주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이다. 이는 오히려 T 소장에게 부메랑이 되어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되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되는 차승수가 되고 말았다.

4) 박윤식 목사에 대한 T 소장의 공개 사과문
이처럼 1983년에서 85년까지는 이처럼 Hapsisa를 통한 공격과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다 대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공개적인 비판은 이어지지 않았다. 박윤식 목사도 교인들에게 "T 소장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미워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다가 1990년 6월 25일자로 T 소장은 박윤식 목사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였다(사진 8 참조).

"그동안 ... 박윤식 목사님을 써잡아 이단으로 몰아부친 점에 대하여 사과하며 박윤식 목사님은 합동보수교단의 소속한 건전한 목사님인 것을 밝혀 드립니다. ... 이 사과문은 순수한 사과의 뜻을 밝혔기에 사과문 이후로는 사과의 경위나 일체의 변명의 기사 및 해명하는 줄부의 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전국 교계에 천명합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내용은 1990년 8월호 Hapsisa에 게재하였다.

3. 박윤식 목사를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으로 조작한 충격적인 내용

T 소장의 Hapsisa 1983년 3, 4월호의 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조작은 바로 '박윤식 목사를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으로 둔갑' 시킨 것이다.

T 소장은 Hapsisa 1983년 3, 4월호에서 박윤식 목사를 "박태선 전도관의 전도사이자 통일교 본부 요원"으로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83년 3월호 기사(90쪽)의 해당 내용을 보면 "그는 57년부터 59년 7월까지 2년간 박태선 전도관의 목포 전도관 전도사로 있다가 이성문제로 타의에 의해 쫓겨났다고 하며, 그후 1961년부터 62년까지 통일교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서 원리공부를 했고, 그때 통일교 간부였던 유 모씨와 기깝게 지낸 인연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유 모씨는 박윤식을 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나와 있다.

4월호에도 이 내용을 언급하며 "1957년~1959년까지 목포 전도관 전도사로 근무할 때 부인 김효순을 서부 일화로에 남겨두고 홀로 내려가 근무하면서 처녀들과의 스캔들을 빚었고 박태선으로부터 쫓겨났다. 1961년 후반부터 1962년 10월경까지 청파동 통일교 본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이달 간부 유 x x 씨에 의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였다.

박윤식 목사가 이단으로 몰려 수많은 공격과 피해를 입게 된 단초가 위 Hapsisa 허위기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짓 이력이 왜 허위 조작인가? 놀라운 것은 T 소장이 말한 목포 전도관 출신의 전도사, 통일교 근무경력이 있는 '박윤식(朴潤植)'이라는 인물이 실재했다는 사실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인물과 박윤식 목사는 전혀 다른 '동명이인'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T 소장은 동명이인인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의 박윤식 전도사를 박윤식 목사에게 뒤집어씌워 이단으로 공격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한자까지도 동일했다.

T 소장이 이들의 관계가 '동명이인'인 것을 알고도 그냥 뒤집어씌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착각해서 박윤식 목사를 목포 전도관 출신의 전도사로 알고 폭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Hapsisa의 기사를 보면 웬만한 수사관이나 탐정 뺨칠 정도의 정보력과 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혼동할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박윤식 목사의 거주지는 마산이었고, 감리교 연합에도 1958~1961년 사이 동마산감리교회 서리 전도사로 사역한 서류를 확인하였을 터이다. 같은 시기에 마산에 있는 사람이 목포에서 전도관 전도사로 근무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박윤식 목사에 대한 천인공노할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 덧씌우기 이단 공작의 실상과 내막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